



조에서도 나타난다. 프렐류드, 알라망드, 쿠랑트, 사라방드, 그리고 마지막 지그 사이에 미뉴에트, 부레, 가보트가 양념처럼 끼어 있다. 하나하나의 조곡이 각 모음곡을 섬광처럼 페뚫고 있다.

マイスキ의 연주에서 특히 눈여겨 볼 것은 그의 저음이다. 영국의 타임즈가 마이스키의 연주를 두고 이야기했던 '저음의 독백'이 과연 무엇인지 보여준다. 확연한 음정과 기가 찰 정도의 정확한 리듬은 그가 음악을 만드는 하나의 도구일 뿐이다.

대위법 음악에서 각 선율의 움직임이 뚜렷하게 들린다. 한순간의 흐트러짐도 없다. 오히려 불만스러운 것은 너무나 완벽한 연주이기에 집에서 커피 한 잔 마시며 듣는 여유로운 바흐가 아니다. 한 음 한 음을 너무나 주의 깊게 들어야 하니 오히려 머리가 아플 지경이다. 그만큼 이날 마이스키의 연주는 정밀했다. 마치 스위스의 정밀한 시계를 보는 듯한 느낌이다.

첼로를 공부하려는 학생이면 이날의 연주회를 보면서 자신이 도달해야 할 궁극적인 목표를 볼 수 있을 것이다. 마이스키의 보잉과 운지는 비범이 극에 달해서 그런지 오히려 지극히 평범해 보였다. 저렇게 쉽게 움직이면서 저런 소리를 만들 수 있다는 것 역시 작은 기적이다. 너무나 자연스러워 어여한 군더더기가 없다.

마이스키는 구소련 당시 유태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반체제 운동에 관여했다는 누명을 쓰고 2년의 옥중생활을 했다. 그가 망명을 하기까지 받은 고통이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이다. 본인 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의 음악인생에 대단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던 '고통의 순간' 이 바흐를 통해서 나타난다. 그만큼 바흐는 모든 정신적인 역량을 흡수하고 표출한다.

마이스키의 첼로는 소리가 애수적이다. 그만큼 한음마다 깊은 정열을 쏟기는 힘들 것이다. 왜 마이스키를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첼리스트라고 하는지 이유를 알 것 같다.

알려진 프로그램과는 다르게 연주한 것은 의문이다. 그러나 프로그램에서 빠진 조곡은 앙코르로 연주했으니 좋은 맛배기다. 음악에 관심 없는 사람은 그의 무대복에 관심을 기울였어도 감칠맛 있었을 것이다.

- 류재준 -

II | 아니스 트 최희연

명료한 해석, 숙련된 테크닉 조화 전제로 한 음악적 감동

바흐의 「프랑스 모음곡 제5번 사장조 BWV 816」 알라망드의 첫 부분부터 그녀는 각각의 악곡을 하나의 호흡으로 처리하려는 의도를 보여주었다. 이것은 이미 이 모음곡을 하나의 명확한 전체로 파악한 결과였다. 따라서 각 프레이즈의 매듭, 연결에는 많은 루바토를 주지 않았다. 이 의도는 작품의 끝까지 어김 없이 적용되었으며 의도에 한치의 오차 없이 부합하는 테크닉을 통해 분명히 전달되었다. 심하지 않은 레가토와 잦은 반페달 사용이 조화를 이루어 충분히 이어지면서도 무겁지 않은 하나의 호흡을 만드는데 기여했다. 반복 시에는 다이내믹과 음색을 달리 하였으며 아티큘레이션 또한 다른 사용을 보여줌으로써 차별화 시켰다. 완전히 같은 악보를 반복하는 것이지만 들려지는 소리는 전혀 새로웠는데 이로 말미암아 듣는 이와의 끈이 풀어지지 않을 수 있었다. 템포 또한 전후 악곡과의 관련성의 맥락 안에서 설정되었음을 물론이다.

마지막 지그는 그 이전까지 각 악곡을 거치는 동안의 힘의 분배가 명확히 계산되었음을 증명하는 하나의 집중된 피날레였다. 페달 사용은 특히 빠른 템포의 지그에서 더욱 돋보였으며 지그를 통해 최희연은 이 모음곡 전체를 하나의 연주회용 피아노를 위한 작품으로 만들어 놓았음을 보여주었다.

위 작품에서의 음색과 다이내믹의 분리가 수평적인 것이었다고 하면 「골드베르크- 바리에이

션」에서의 그것은 무엇보다 수직적인 것이었다. 특히 각 성부성부가 분명한 음색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드러날 때에는 마치 여러 다른 악기의 양상들을 듣는 것 같았다.

음색뿐만 아니다. 이 연주자의 테크닉에 비로소 놀라게 된 경우는 바로 여러 프레이즈들이 다양성적으로 얹힐 때의 다이내믹 처리, 즉 크레센도, 데크레센도를 각각 다르게 하고 있음을 발견했을 때이다. 음색과 다이내믹은 즉, 수직적으로도 분명히 구분되고 있었다. 「프랑스 모음곡」 해석이 「골드베르크- 바리에이션」이라는 좀더 복잡한 텍스트속에서, 원리는 같으나 다른 방법으로 적용되었다. 아예 이 연주회 자체가 하나의 의도된 음악적 구성-composition인 것은 아닐까?

특히 이 작품에서 두드러진 것은 계산된 휴지(pause)였다. 각각의 휴지의 길이가 다 달랐는데 이 또한 앞뒤 맥락을 고려하여 계산했음이 명확히 드러났다. 이 휴지의 계산된 길이에 의해 이 대곡의 형식적 구분은 명확하게 이루어졌으며 그와 더불어 루바토 또한 아무 곳에서나 즉흥

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그것이 하나의 형식적 도구임을 분명히 드러냈다. 이 작품이 하나의 긴 호흡으로 묶이는 것을 비로소 연주가 끝날 때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를 위해 큰 역할을 한 것이 중간 중간의 휴지(pause)의 길이였다.

해석의 옳고 그름에 대해 논할 생각은 없다. 그것이 어떤 것인 중요한 것은 제대로 드러났는가이다. 제대로 드러날 때만이 음악회장이라는 공간의 집중을 가능하게 해 준다. 템포는 말할 것도 없고 다이내믹과 음색, 그리고 아티큘레이션이라는 것이 형식을 구성하는데 중요한 요소임을 연주자는 충분히 인식했던 것 같다. 분명한 대조가 필요할 때에는 각 퍼래미터(parameter)들을 좀더 극단으로 끌고 감으로써 구분을 명확히 하였는데 한 작품의 구성을 분명히 드러내는 것이 음색이고 다이내믹이라는 사실을 느끼게 해 줄 수 있는 연주는 사실 그리 쉽게 접할 수 없는 것 아닌가 싶다.

이 연주는 한마디로 명료한 해석과 숙련된 테크닉의 조화였다. 소위 '음악적 감동'은 이것을 전제로만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1월 14일 금호 갤러리)

- 최우정 -



피아니스트 로널드 브로티검

의미 없는 기획 의도, 실망스런 무대 · 객석

한 마디로 '왜 열렸나' 싶은 연주회였다.

'로널드 브로티검 피아노 독주회'는 지난 1월 13일(영산아트홀), 14일(문화일보홀) 두 차례 무대에 올라셨는데, 주목할 것은 이 음악회(14일 문화일보홀)가 '문화일보홀 개관 5주년 기념 음악 축제'의 일환으로 열린 무대라는 점이다. 6일 동안 열렸던 이 '문화일보홀 개관 5주년 기